

"예배하는 가정
행복한 우리집"



FAMILY DAY

< 우리 가정 안에 자라가는 열매들 >

2018 10·11·12

가정예배 자료집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가정 가정예배 오답노트 다시 쓰기

예배학교 2기

11.25 - 12.23.

매주일 11:00-13:00



장소 |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503호
신청 및 문의 | 유태완 전도사 010.2222.6556

가정예배 서약서

가정예배 드리기로 서약해요!

서약서

우리는 가정예배 공동체로서 가정예배를 실천하기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첫째, 우리 가정은 교회의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018년 월 일

서약자: _____ 서명

목차 Contents



가정예배 Family Day(패밀리 데이) 소개	05
10·11·12월호 소개 - "우리 가정 안에 자라가는 열매들"	06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08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09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13주 실제)

1주	09.30 ~ 10.06	믿어주는 사랑, 신뢰의 열매	12
2주	10.07 ~ 10.13	하나 되는 사랑, 연합의 열매	14
3주	10.14 ~ 10.20	낮아지는 사랑, 섬김의 열매	16
4주	10.21 ~ 10.27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직의 열매	18
5주	10.28 ~ 11.03	초대하는 사랑, 환대의 열매	24
6주	11.04 ~ 11.10	참된 만족의 열매	26
7주	11.11 ~ 11.17	참된 기쁨의 열매	28
8주	11.18 ~ 11.24	감사의 열매	30
9주	11.25 ~ 12.01	행복의 열매	36
10주	12.02 ~ 12.08	주로 오시다	38
11주	12.09 ~ 12.15	보고 들음을 넘어서	40
12주	12.16 ~ 12.22	영광의 방식	42
13주	12.23 ~ 12.29	세관의 크리스마스	44

교육부 주요활동	47
----------	----

가정예배 Family Day(패밀리데이) 소개

예배란,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는 사건이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미 열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며, 예배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삶을 드리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롬 12:11-2, 요 4:23-24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사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 가족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가족은 예배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 새 출발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공유하게 되고 서로의 삶이 예배를 통해 묶여지게 되며, 신앙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예배는, 그러므로 가정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배로 가득차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초 위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 먼저 가족이 함께 예배함으로 세웁시다.

「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 시 133:3 ** 」

패밀리데이는 일주일에 한 번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배 안에서 회복하는 영락의 모든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자라가는 열매들

10-12월호를 시작하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 빌 1:6 **

<10월, 사랑의 열매들, 그 다양한 맛>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역하던 한 지인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는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좀 더 사랑하고 살 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살면 살수록 발견되는 가장 귀한 열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한 번 맺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의 사랑, 청년기의 사랑, 부모가 되어서의 사랑 등 다양하다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매 시기마다 사랑은 필요하며, 사랑함과 사랑받음으로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그 맛도 다양합니다. 믿어주고 신뢰하는 맛, 연합하여 하나 되는 맛, 내가 나를 낮추어 섬기는 맛, 감추고 가리는 것에서 벗어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하는 맛 등 우리 삶의 곳곳을 행복하게 물들입니다. 이 모든 맛은 오직 ‘사랑하기에’ 느껴지는 맛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저 의무요, 피곤함이고, 두려움일 수 있는 일들이 사랑할 때 삶을 행복하게 하는 맛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맺어가고 있는 열매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의 열매는 여전히 맺고 있으며, 계속하여 소중하게 가꾸어 가야 할 열매입니다. 10월의 가정예배는 올 한 해 맺어오고 있는 우리 가정 사랑의 열매를 다시 맛보는 시간입니다.

<11월, 기쁨과 감사의 참된 열매들>

11월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달입니다. 한 해 수고한 밭의 열매들을 거두며 감사하는 때입니다. 자녀 키움의 밭, 학업의 밭, 직장 생활의 밭 등에서 수고하고 얻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때입니다.

가르치던 제자가 귀농하여 포도농사를 시작한 지 4년째인데, 지난여름에야 다녀왔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큰 수확을 거두는 것 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도 포도나무 스스로가 튼실히 자라고 포도열매가 견실한 열매가 되는 농법을 찾기 위해 4년째 여전히 배우며, 견학해 가며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대견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저 빨리, 크게 열매를 얻기 보다는 앞으로 오랫동안 견실하게 열매를 맺어갈 포도나무를 길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이 가을을 맞이하도록 수고했던 우리 가정의 삶의 열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저 열매의 수와 크기만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튼실한 열매, 건강한 열매가 우리 가정에 맺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11월 한 달, 참된 가정의 견실한 열매를 생각해 보는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참된 만족의 열매’, ‘참된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행복의 열매’가 견실하게 맺혀지고 있는 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되기를 바랍니다.

<12월, 교회와 가족이 함께 하는 성탄의 시간>

올 12월에도 우리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하는 원포인트 교육주간으로 보냅니다. 담임목사님께서 미리 가정을 위한 본문 말씀을 정해 주셨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본당 주일 예배에서 어른들에게, 주일학교 예배에서 자녀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같은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월의 끝자락에서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발견합니다. 한 해의 처음부터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시고 기도하며 수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으로 새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가정예배를 통하여

1.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2.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며
3.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4. 자녀를 다음세대의 예배자로 세워나간다.

우리 가족 약속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요일, 시간,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합니다.
(예: 거실, 부엌식탁 등)

1. 예배인도자는 기도자를 정하고, 예배에 필요한 주제송 음원과 예배자료집을 미리 준비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www.youngnak.net)
2.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 자녀가 없는 부부 가족이나 일인 가족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가정예배 에티켓
 - 1)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 2) 휴대폰과 TV는 꺼둡니다.
 - 3) 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 찬양

주어진 찬양을 가족과 함께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달의 찬양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11p

2 말씀읽기 (개역개정)

한주간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가족이 다함께 또는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말씀읽기 - 요한복음 21:15-18

3 생각하기

말씀을 중심으로 주어진 질문에 답해봅니다.

가족의 생각과 다짐을 함께 나눕니다.



생각하기

4 말씀듣기

말씀의 배경을 함께 알아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내용을 읽어주며, 다른 가족은 경청합니다.



말씀듣기

5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며 기도로 마칩니다.

가족의 기도제목을 적고 주어진 기도제목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10 OCTOBER

일_SUN	월_MON	화_TUE	수_WED	목_THU	금_FRI	토_SAT
	1	2	3 개천절	4	5	6
7	8	9 한글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선교주일	22	23	24	25	26	27
28 종교개혁 기념주일	29	30	31			

이달의 찬양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C G Dm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 가지에 푸른
 — 어떤 시련이 와 도 — 능히 — 이겨 낼 강한

6 C F G Em

— 열매처럼 — 하나님 — 귀한 축 — 복 — 이 — 삶에
 — 팔이 있어 — 전능하신 — 하나님 — 께 — 서 — 너와

12 Am Dm 1. G 2. Dm G

— 가득히 — 넘쳐날 — 거 — 야 — 너 함께하 — 시 — 니 —
 — 언제나 —

20 C G Am Em

너는 하나님의 — 사 — 람 — 아름다운 하 — 너의 — 사 — 람

24 F C/E Dm G

— 나는 널 위 — 해 기 — 도 하며 — 네 길을 — 축복할 — 거야

28 C G Am Em

너는 하나님의 — 선 — 물 — 사랑스런 하 — 너의 — 열 — 매

32 F C/E Dm G C

— 주의 품에 — 꽃피울 — 나무가 되어 줘 —



믿어주는 사랑, 신뢰의 열매

요한복음 21:15-18



이달의 찬양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11p



말씀읽기 - 요한복음 21:15-18

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생각하기

- Q1.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뢰하시며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야기해봅시다.
- Q2.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에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가족도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듣기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더 이상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니다. 그러자 그들의 표정은 밤하늘처럼 어둡고, 마음은 빈 배처럼 공허해 보입니다. 누구보다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도 자신만큼은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절망감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쳐있는 그를 위로하시며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잊으시고, 다시 한 번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나아가 그를 신뢰하시며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힘을 얻은 베드로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신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하여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하나 되는 사랑, 연합의 열매

사도행전 11:19-26



이달의 찬양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11p



말씀읽기 - 사도행전 11:19-26

19 그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 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생각하기

- Q1. 사울과 바나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무엇을(누구를) 기준으로 연합하였나요?
- Q2. 지금 나와 우리 가족이 복음과 예수님 안에서 연합해야 할 대상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듣기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 받고 있었습니다. 핍박을 피해 각지로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게 되는 전도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회심한 사울을 안디옥으로 보내 새신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무려 1년간이나 새신자 교육을 받은 그들은 복음에 순종했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 모든 이들로부터 “그리스도인”(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처음 불렸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우리는 “연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하여 핍박을 멈추고 핍박하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둘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한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의 열매를 기억하며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에서 다투고 갈등보다 연합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바나바와 사울처럼, 안디옥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며 연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낮아지는 사랑, 성김의 열매

요한복음 13:1-10



이달의 찬양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11p



말씀읽기 - 요한복음 13:1-10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8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생각하기

Q1. 예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나요?

Q2.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말씀듣기

예수님은 자기가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식사를 마치시고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발을 씻더라도 자신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주님으로 모시며 따라다녔던 분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니 송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 있어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행동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에 의미를 담아 표현해본다면 낮아지는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애를 쓰며 살지 않도록, 오히려 보다 더 겸손히 낮아지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낮아지는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 가정도, 먼저는 예수님의 낮아지는 사랑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낮아지는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여주신 낮아지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가정이 되도록 성령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직의 열매 시편 51:10-17



이달의 찬양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11p



말씀읽기 - 시편 51:10-17

10 하나님이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3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4 하나님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며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6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생각하기

- Q1. 사람은 누구나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며 그럴 때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로 남을 속인 적이 있나요? 그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나요?
- Q2.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정직하게 뉘우치는 자를 기뻐하시지만, 속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며 결단해봅시다.



말씀듣기

다윗 왕은 자신의 군대가 전쟁터에서 전투를 벌이는 동안 궁전 옥상을 거닐다가 먼발치에서 목욕하고 있는 아리따운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지금 전쟁터에서 다윗 왕을 위해 전투에 참가하고 있던 군대지휘관 우리아의 아내(밋세바)였습니다. 다윗 왕은 파렴치하게도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자신의 궁전으로 불러 동침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서도 자신의 신하 우리아에게 이 사실을 거짓으로 숨겼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했던 불법한 일을 저지른 다윗을 책망하셨고 마침내 다윗은 자신의 잘못과 거짓을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되 무엇보다 더 이상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시51:10}.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으려했던 것도 큰 잘못이지만 그것을 거짓으로 숨기고 남을 속이려 한 것은 더 큰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기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0/28-11/3

5주 가정예배

초대하는 사랑, 환대의 열매

룻기 2:8-13



이달의 찬양 <너는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11p



말씀읽기 - 룻기 2:8-13

08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09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10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1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3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생각하기

- Q1. 낯선 환경과 어려운 형편에 있던 룻에게 보아스는 먼저 친절을 베풁니다. 보아스는 따뜻하고 부드럽게 룻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보아스였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 Q2.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 혹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보아스처럼 이웃과 사람들을 향해 따뜻하게 배려하고, 친절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해 봅시다.



말씀듣기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 룯은 이방인이자 과부였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룯, 이렇게 둘 만 덩그러니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룯은 남의 집에서 추수하고 떨어진 이삭을 줍기로 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 그곳에서 이삭을 줍던 중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종들에게 룯에게 물을 가져다 줄 것과 룯이 이삭 줍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배려하도록 말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이방여자인 룯이 유대 땅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의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과 배려로 인해 룯은 낯선 환경과 땅에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아스와 같이 항상 ‘나그네를 사랑하라’^{신10:19}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 보아스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게 해주시고, 따뜻하고 친절함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용기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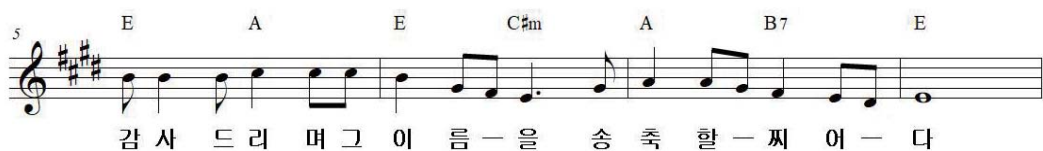
11

NOVEMBER

일_SUN	월_MON	화_TUE	수_WED	목_THU	금_FRI	토_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추수감사주일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달의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참된 만족의 열매

요한복음 4:10-15



이달의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25p



말씀읽기 - 요한복음 4:10-15

-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 11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 15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생각하기

- Q1. 나는 무엇을 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나요? 나의 말로 대답해 봅시다.
- Q2. 참된 만족은 어떠한 상황이나 물건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만이 만족임을 기억하며 다른 것에서 만족함을 찾아다니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해 봅시다.



말씀듣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인이 사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하지 않던 유대인이, 그것도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걸어 물을 달라고 하자 사마리아 여인은 당황하며 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 우물은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이고 짐승과 사람들이 다 마셔서 없고 예수님은 물을 길은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인의 물음에 예수님께서서는 이 우물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 물은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목말랐고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참된 만족은 상황의 어려움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기도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이 참된 만족임을 알고 다른 것에서 만족함을 찾아다니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참된 기쁨의 열매

하박국 3:16-19



이달의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25p



말씀읽기 - 하박국 3:16-19

- 16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 19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생각하기

- Q1. 오늘날 우리들의 감사의 이유가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만 집중되어있지 않은지
믿음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미 받은 것처럼 기뻐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인지 되짚어 봅시다.
- Q2. 하박국은 악이 득세하는 현실의 부조리한 상황가운데서도 포기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최후승리를 얻을 것이란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현장이 녹록치 못하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포기치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결단해봅시다.



말씀듣기

하박국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 파괴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까지 이르게 된 위기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에 전해졌습니다. 그 위기는 외적인 것뿐 아니라 내적인 영역도 있었는데 바로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왜 의롭고 정의로운 통치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는가? 라는 신앙의 갈등과 고뇌의 씨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악인은 심판당하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놀랍고 신비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박국은 최후의 승리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존재나 은혜에 관한 어떤 외면적인 징조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도

하나님, 우리들의 소망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보이는 것들에만 초점 맞추어져서 그것이 결핍되어지거나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는지 되짚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부딪히는 고난의 순간들을 넉넉히 이기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1/18-24

3주 가정예배

감사의 열매

신명기 26:1-11



이달의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25p



말씀읽기 - 신명기 26:1-11

0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0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
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03
그 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
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04 제사장
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05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
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06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
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07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08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
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09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
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10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 네 하나님 여
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생각하기

Q1. 우리 가족에게 있었던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은 어떤 일이었나요?
가족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Q2.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다시 떠올려보며 가족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말씀듣기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대장정 끝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곳에서 거주할 때에 지켜야 할 수칙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거두게 될 때 모든 소산의 만물, 즉 처음 거둔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고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은혜, 그리고 험한 광야를 지나는 기간 동안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살아가게 된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거두게 된 이 소산은 마치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기억할 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소산을 드린 후에는 레위인, 그리고 함께 거류하는 손님들과 같이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할 때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에 항상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사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1/25-12/1

4주 가정예배

행복의 열매

시편 1:1-6



이달의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25p



말씀읽기 - 시편 1:1-6

- 0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 02 오직 여호와와 의를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 0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 0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 0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 0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생각하기

- Q1. 성경은 어떤 사람이 참된 행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하나요?
그렇다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지 생각해봅시다.
- Q2.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며,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말씀듣기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서, 어떤 사람은 명예로서, 또 다른 이는 권력을 얻음으로 행복함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영원하지 않으며 금세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행복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마다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예, 권력은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사 40:8고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행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행복의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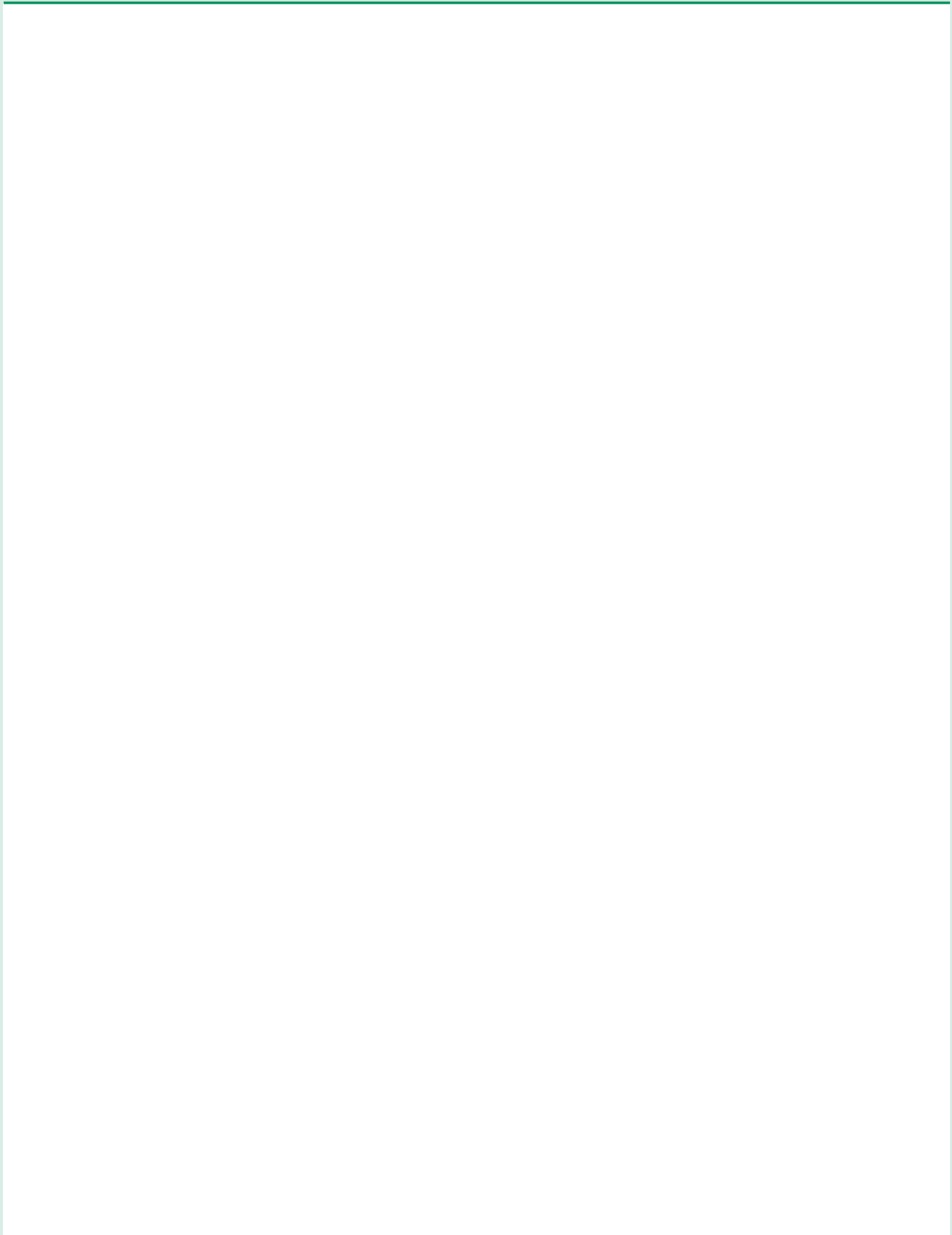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12

DECEMBER

대림절 원포인트 교육주간

일_SUN

월_MON

화_TUE

수_WED

목_THU

금_FRI

토_SAT

1

2

3

4

5

6

7

8

교회창립 73주년,
대림절 첫번째 주일

9

10

11

12

13

14

15

대림절 두번째 주일

16

17

18

19

20

21

22

대림절 세번째 주일

23

24

25

26

27

28

29

대림절 네번째 주일

전세대가 함께 하는
성탄예배

30

31

이달의 찬양

저들 밖에 한 밤 중에



1.저 들 밖 에 한 밤 중 에 양 틈 에 자 던 목 자
2.저 동 방 에 별 하 나 가 이 상 한 빛 을 비 추
3.그 한 별 이 배 들 레 험 향 하 여 바 로 가 더
4.저 동 방 의 박 사 들 이 새 아 기 보 고 절 하



들 천 사 들 이 전 하 여 준 주 나 신 소 식 들 었 네 노
여 이 땅 위 에 큰 영 광 이 나 타 날 징 조 보 었 네
니 아 기 에 수 누 우 신 집 그 위 에 오 자 멈 췄 네
고 그 보 배 합 다 열 어 서 세 가 지 에 물 드 렸 네



엘 노 엘 노 엘 노 엘



이스 라 엘 왕 이 나 션 네 아 멘



주로 오시다

마태복음 16:13-18



이달의 찬양 <저 들 밖에 한 밤 중에> 37p



말씀읽기 - 마태복음 16:13-18

- 13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 14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생각하기

- Q1.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종교지도자 중 한사람입니까? 훌륭한 위인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까?
- Q2.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그동안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했던 생각들을 버리고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듯 나도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해 봅시다.



말씀듣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민족의 지도자로 또는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쳐 줄 영웅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입에서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민족의 영웅과 지도자 같은 선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족스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니 다들 머뭇머뭇 거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만족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의 영웅으로 또는 선생으로 예언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써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이달의 찬양 <저 들 밖에 한 밤 중에> 37p



말씀읽기 -이사야 11:1-5

- 0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 02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 03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 04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 05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생각하기

- Q1.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외적인 보고 들음을 기준으로 삼는지, 그 진실 이면에 있는 공의와 정직을 기준으로 삼는지, 우리의 삶을 정직히 돌아봅시다.
- Q2. 대림절을 보내며, 2019년을 준비하며, 우리가 더욱 정직하고, 정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시다.



말씀듣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아 예언들 중 하나입니다. 메시아께서 이세의 줄기에서 나실 것이라는 예고와 함께 그분께서 하실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3절 중간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분은 공의와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면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표면적인 부분을 넘어, 그 이상의 가치인 공의와 정직을 따라 판단하고 살아가는 대림절을 보내는 영락가족 되길 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길 원합니다. 보고 들음을 넘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이달의 찬양 <저 들 밖에 한 밤 중에> 37p



말씀읽기 - 누가복음 2:1-14

01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02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03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04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05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06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07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0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0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생각하기

Q1.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Q2.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며 찬송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봅시다.



말씀듣기

응애응애~ 호호 추운 겨울 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니! 그 곳은 어디였을까요? 반짝반짝 황금빛이 나는 궁궐일까요? 아니면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말들이 살고 있는 마구간이었어요. 아기 예수님은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놀라운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러 갔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 중 하나인 목자들이었어요.^{8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처음 계셨던 곳은 빛나고 화려한 곳도, 돈과 명예가 가득한 높은 곳도 아니었어요. 모두가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낮은 곳이었어요. 재산과 신분, 인종과 생김새에 관계없이, 찾아오는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이 마구간에 예수님은 제일 먼저 오셨어요. 천사들은 마구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 비천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어요.^{14절}



기도

예수님께서서는 낮고 천한 곳에 가장 먼저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곳이 어떤 곳이든, 예수님이 계신 그 곳에 우리 가정도 함께 있게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세관의 크리스마스

마태복음 9:9-13



이달의 찬양 <저 들 밖에 한 밤 중에> 37p



말씀읽기 - 마태복음 9:9-13

- 09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 10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 11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 12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 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생각하기

- Q1.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에게 나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 왔는지 한 번 생각해봅시다.
- Q2.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시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에게도 주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성탄이 되길 도울 수 있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듣기

예수님께서 본 마을로 돌아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의 일입니다. 그곳을 떠나 길을 가 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저 지나치시지 않고 마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직업으로, 마태 역시 마을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소외되었던 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세리’라는 직업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마태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가 예수님을 모셔와 음식을 대접할 때에, 마태 외에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자리하는 것을 막거나 꺼려하지 않으십니다.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합니까?”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오히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답하시며 그들이 보지 못하던 참 뜻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떠한 귀천 없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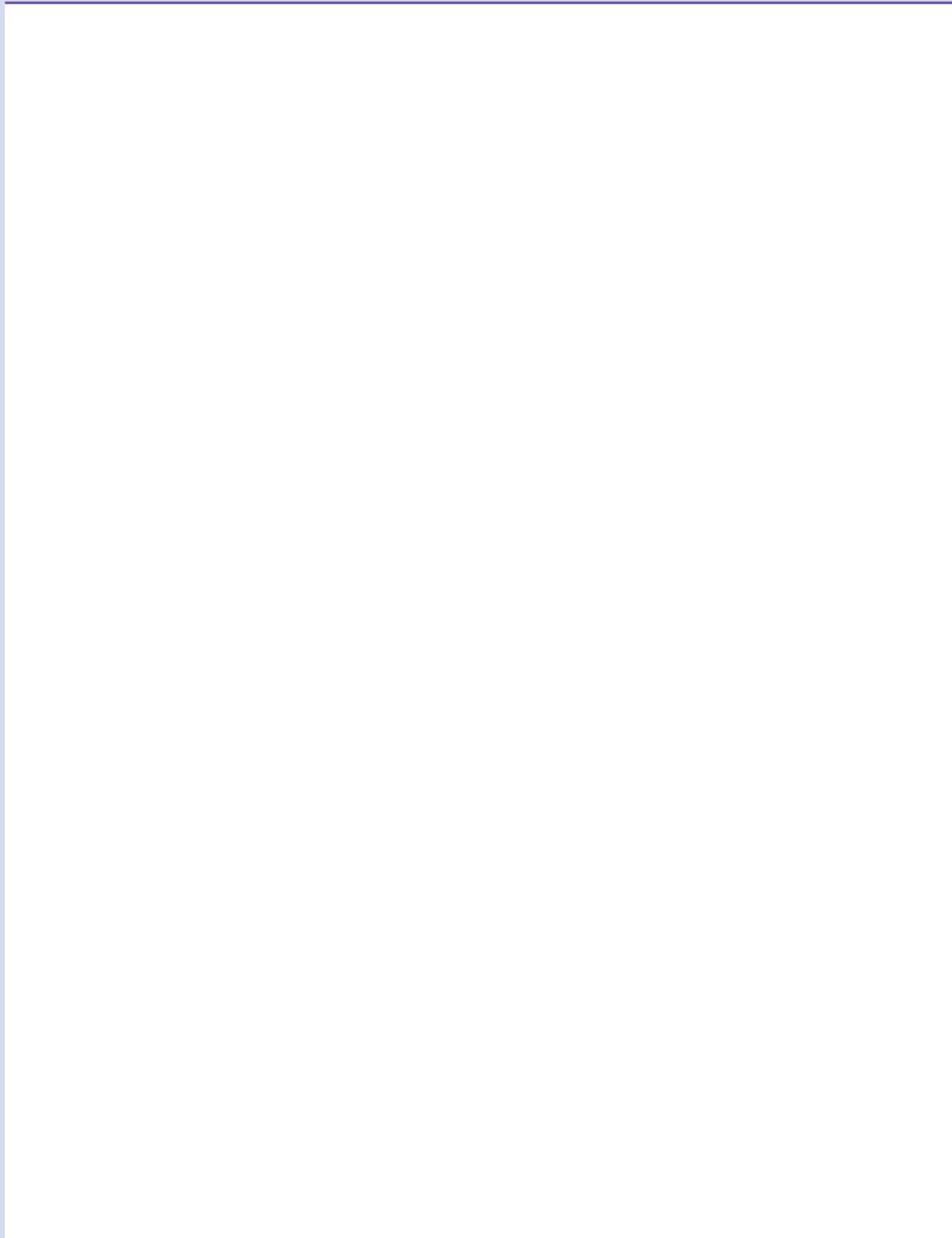


기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순백의 눈이 온 세상 덮듯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이 덮이게 하여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10·11·12월 교육부 주요활동

교육부

대림절 원포인트 교육주간	12.2 (주일) - 25 (화)
성탄절 전세대 예배	12.25 (화)

사랑부

가을 야외예배	10.7 (주일)
20주년 기념 찬양연극제	10.27 (토)
열린주말학교 2학기 종강 및 발표회	11.17 (토)
추수감사주일 연극예배	11.18 (주일)
주말학교 작품전시회	12.25 (주일)
사랑부 성찬식	12.9 (주일)

영유아유치부

유니게 II 단계 가족캠프	10.12 (금) - 13 (토)
유니게 I 단계 조이스쿨	11.3 (토) - 11.24 (토)
유니게 III단계 종강	11.10 (토)
유니게 II 단계 종강	12.1 (토)

영아부

온가족 감사축제	11.18 (주일)
성탄특별예배, 수료식	12.23 (주일)
진급예배	12.30 (주일)

유아부

뒷장에 계속됩니다 ▶

가을맞이 실내소풍	10.21 (주일)
추수감사주일 특별 예배	11.18 (주일)
성탄주일 특별 예배, 수료식	12.23 (주일)
수료예배	12.30 (주일)

유치부

가을소풍	10.21 (주일)
추수감사주일 특별 예배	11.18 (주일)
성탄가족예배, 수료식	12.23 (주일)
진급예배	12.30 (주일)

아동부

아동부 찬양제 리틀스타	10.28 (주일)
주말학교	9.29 (토) - 11.3 (토)
주말학교 가족캠프	11.9 (금) - 10 (토)

유년부

교사 야유회	10.3 (수)
가족과 함께하는 반목회	10.14 (주일)
성경 퀴즈 골든벨	11.18 (주일)
추수감사주일 특별예배	11.25 (주일)
포도원 축제	12.23 (주일)
연말 시상	9.16 (주일)
졸업 예배	12.30 (주일)

초등부

어린이 야외 소풍	10.7 (주일)
교사 수련회	10.13 (토)
성경 골든벨	10.21 (주일)
가족초청예배(3) 추수감사주일	11.18 (주일)
사랑의 헌금(해외선교)	11.25 (주일)
연말 시상식	12.23 (주일)
수료식	12.30 (주일)

소년부

종교개혁 특별예배	10.28 (주일)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11.18 (주일)
성경퀴즈대회	11.25 (주일)
연말시상	12.23 (주일)
졸업예배	12.30 (주일)

CEBC

YMS 선교훈련	9.1 (토) - 10.6 (토)
canned food drive begins	10.21 (주일)
Sports day	11.18 (주일)
canned food drive	11.18 (주일)
Music festival rehearsal	12.16 (주일)
Music festival	12.23 (주일)
연말시상 및 졸업예배	12.30 (주일)

뒷장에 계속됩니다 ▶

중등부

독수리 프로젝트(중등부에 깨진 독을 수리하는 교사심방)	9.9 (주일)
School looks Day 및 기자단 헌신예배	9.16 (주일)
그루터기	10.7 (주일) - 11.18 (주일)
방송반 헌신예배 및 학부모 초청예배	10.14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10.28 (주일)
추수감사주일	11.18 (주일)
교사위로회	12.8 (토)
정기음악회(크리스마스 칸타타)	12.23 (주일)
졸업예배	12.30 (주일)

고등부

학생회 임원교체식	9.2 (주일)
수요미식회(학교방문/학생심방)	9월 - 11월
더 가까운 예배 및 각 반의 날 행사	9.30 (주일)
종교개혁주일예배	10.28 (주일)
추수감사주일	11.18 (주일)
교사위로회	12.13 (목)
더 가까운 예배 및 각 반의 날 행사	12.30 (주일)

베드로부

선배와 함께 드리는 예배	10.14 (주일)
수능 학부모 기도회	11.3 (토), 11.10 (토)
수능 벗님 기도회	11.4 (주일), 11.11 (주일)
수능 감사 기도회	11.15 (목)
동계수련회	11.30 (금) - 12.1 (토)

대학부

대청연합예배	9.9 (주일)
대학부 학생회 이취임식 / 대학부찬양대(SMC)찬양음악회	9.16 (주일)
2018 대학부 LTS	10.6 (토) - 11.24 (토)
리더블레싱	12.2 (주일)
친구초청 및 성탄예배	12.23 (주일)

청년부

2학기 예비리더훈련(LTC)	9.13 (목) - 11.22 (목)
젊은이예배 성찬	10.14 (주일)
종교개혁주일 특별예배	10.28 (주일)
정기총회	11.4 (주일)
성경읽기 프로젝트 미션성취 감사예배	11.18 (주일)
정기총회 속회	12.9 (주일)

교사교육부

교사교육부 2학기 개강	9.9 (주일)
교사교육부 2학기 종강	11.25 (주일)
교사재교육 워크샵	10-11월 중

교회교육원

청년멘토링 컨퍼런스	11.15 (목) - 18 (주일)
가정예배학교	11.25 (주일) - 12.23 (주일)

발행통권 | 19호
발행일 | 2018년 10월 1일
발행인 | 김운성
기획인 | 백성우, 박남진
편집인 | 유태완
디자인 | 한수진
집필진 | 영락교회 교육부 교역자
주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 02-2280-0131
발행처 |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본 책의 내용은 무료 배부 됩니다. (www.youngnak.net)

책의 내용을 사용시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저작'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